

# 장샤오펜(張笑天) 중편소설 《공개된 ‘내부 참고’(公開的“內參”)》 小考\*

金鍾碩\*\*

## <목 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내부 참고’》의 주요 인물 분석
3. 《공개된 ‘내부 참고’》의 역사적 부침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장샤오펜(張笑天)<sup>1)</sup>은 중국 당대 문단에서 전

\* 이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대학 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고려대학교 CORE 사업단 연구교수.

1) 장샤오펜(1939~2016): 소설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지식인 집안 출신으로, 교육 부서에 종사한 조부와 부친의 영향으로 문학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1957년 등베이 사범대학 역사학과에 입학하였다. 1961년 대학 졸업 후 10년간 중학 어문 교사 생활을 하였다. 1969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1971년부터 둔화현(敦化縣) 현 위원회 선전부, 문화국에서 창작에 종사하였다. 이후 창춘(長春) 영화 촬영소 부소장, 작가 협회 지린(吉林) 분회 부주석, 중국 영화 문학 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70년대 말 최초의 장편소설 《영녕비(永寧碑)》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수백 편의 소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장편소설이 28편, 중편소설이 50여 편에 달한다. 이밖에 영화·드라마 시나리오 70여 편과 각종 잡문, 수필, 평론을 발표하였다. 2002년 이후 《장샤오펜 문집(張笑天文集)》(총 30권)이 출판되었다. 그의 작품은 시대와 호응하며 사회 현실과 시대정신이 잘 구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0여 차례에 걸쳐 중국 국내외 각종 문예상을 수상하였다. (鄂基瑞 等撰, 《中國現代文學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90, 474쪽; 何青志, <洞穿歷史與現實的多元敘事——張笑天小說論>(《何青志文集》, 吉林人民出版社, 2014), 376-377쪽)

국적인 영향력을 지닌 작가이자, 방대한 작품 수와 경이적인 창작 속도, 선명한 당대성과 시대의식을 지닌 작가로 유명하다.<sup>2)</sup>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한 이래, 그는 리얼리즘을 견지하며 시대적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당대 중국의 사회 현실을 제재로 다양한 편폭의 소설을 창작하였다.

특히 '신시기' 문학이 등장한 1978~1982년의 역사적 전환기가 장샤오펜 창작의 첫 번째 전성기였다. 이 시기 작가의 창작에서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장점을 겸비한 중형화기"인 중편소설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4년간 총 24편이 창작되었다.<sup>3)</sup> 장샤오펜은 중편소설을 통해 당대 중국 현실의 현장성과 시대의식을 담았다. 즉 격렬한 변혁기였던 80년대의 사회 현실과 당시 중국인의 복잡한 삶과 내면세계를 작가 특유의 민감한 시선과 관찰을 통해 발 빠르게 포착하고, 이를 생동적인 인물 형상과 탁월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기 중편소설 중 성명작(成名作)인 《공개된 '내부 참고'(公開的“內參”)》가 대형 문학 간행물 《당대(當代)》 1982년 1호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은 중년의 베테랑 기자 루친팡(陸琴方)이 다롄(大連) S대학에 취재차 갔다 경험한 이야기를 주요 줄거리로 다룬다. 사고 방식과 기질, 성격이 각기 다른 세 여대생의 인물 형상 및 그녀들의 사랑과 생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입장이 짙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발표한 1982년 전후를 문예 창작에 있어 전대미문의 번영과 활기를 지닌 정점으로 간주하고, 사상을 해방시키고 '성역'을 타파하는 것이

2) 孫林, <敏銳地感應時代的變化——張笑天中篇創作斷想>(<新苑> 1983年 第2期, 1983), 424-425쪽 참조.

3)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대형 문학 간행물의 복간에 따른 중편소설 붐, 중편소설이 갖는 장르적 장점 등으로 인해 중편소설이 그의 창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첫째, '강한 신축성'을 지녀 비교적 자유롭고 일관된 형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었고, 생동적인 인물의 형상화가 용이했다. 둘째, 장편소설에 비해 짧은 편폭으로 인해 탈고와 발표가 빨랐기에, 현실 생활의 최신 제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 셋째, 가독성 측면에서 여타 소설 장르에 비해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張笑天, <觀古今於須臾, 撫四海於一瞬——中篇小說選後記>(<張笑天文集 散文隨筆卷>, 吉林人民出版社, 2002), 701-702쪽 참조.)

이 시기 작가의 급선무라 주장하였다.<sup>4)</sup> 이러한 작가의식을 기반으로 당시 작가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제재인 대학생의 생활, 그 중에서도 고도로 민감한 신경을 지닌 대학생들의 연애관을 탐색했다는 점<sup>5)</sup>에서 이 작품은 독자와 비평가들의 반향과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공개된 '내부 참고'》는 읽는 이의 입장과 독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개방성을 지닌다. 이 소설은 1982년 발표되자마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독자 대중의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고, 작품의 진실성과 인물 형상 등에 대한 찬반양론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류 문학계의 냉대를 받고 '논쟁작'으로 분류되다 결국 장시간 '잊혀진 작품'으로의 역사적 부침을 겪는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 사회의 전환기인 1980년대 초를 배경으로 서술된 이 작품에 대한 세밀한 독법을 통해, 작품에 묘사된 주요 인물 형상을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지식인 두 부류로 나누어 분석하고, 두 세대 사이에 드러나는 각기 다른 가치관과 사유 방식의 차이와 소통 가능성 등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시기 이후 문학 창작과 담론의 주도권을 갖는 청년 작가들과는 다른, 청년 세대에 속한 장샤오편의 작가 의식과 문학관을 간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작품이 발표된 1980년대 초중반 《공개된 '내부 참고'》을 둘러싸고 벌어진 독자 대중 및 주류 문단의 논쟁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 소설을 둘러싼 문단 환경과 역사적 콘텍스트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발표→'논쟁작'→'잊혀진 작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이 작품이 갖는 의의 등을 살피고자 한다.

4) 張笑天, <藝術良心>(《張笑天文集 散文隨筆卷》, 吉林人民出版社, 2002), 697쪽.

5) 張笑天, <就《公開的'內參'》答讀者>(《當代》, 1982年 04期), 253쪽.

## 2. 《공개된 '내부 참고'》의 주요 인물 분석

### 2.1. 《공개된 '내부 참고'》의 체재 및 주요 내용

《공개된 '내부 참고'》는 다롄(大連) S대학 캉핑(康平) 총장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기자 루친팡(陸琴方)이 '내부 참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연애편을 취재하러 출장 갔다 경험하고 느낀 며칠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작품 도입부에서는 이 소설이 당 간부의 정책 결정용으로 기자가 작성한 '내부 참고'에 들어갈 내용을 각색했다는 내용을 짧게 소개한다. 이후 본문 1-12장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액자 소설 구조를 이룬다. 이는 당초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된 내용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동시에 작가가 세부 내용 중 비판 받을 여지가 다분한 청년들의 부정적 사고와 정서를 묘사했음을 고려해 안전판 역할을 위해 액자 구조를 설정하였을 것이다.

작품의 체재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공개된 '내부 참고'》의 체재, 주요 내용

장 제목	서술 내용
도입부	· '내부 참고' 작성을 위해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에 처해 줄행랑을 놓고, 몇 개월 후 그가 보여준 불완전한 원고를 작중 화자가 소설로 각색했음을 소개. <sup>6)</sup>
1장 '중국의 술제니친'	· 다롄 행 기차에서 기자 루친팡이 우연히 만난 80년대 유명 '몽룡시인' 안루루(安路路)에 대한 부정적 묘사.
2장 서로 흠모한 지 오래된 '신여성'	· 루친팡과 일면식도 없지만 10여 통의 서신왕래를 통해 논쟁하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게 된 S대학 의대생 거이란(戈一蘭) 묘사.
3장 추녀가 미녀로 변하다	· 거이란의 친구를 자처하며 기차역으로 마중 나온 매력적인 외모와 성격의 소유자 캉우쓰(康五四) 묘사.

4장 그녀야말로 진짜 강우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친 강평(康平)의 집 방문 후, 수수한 외모와 수녀를 연상케 하는 옷차림을 한 강평의 딸 강우쓰를 만난 루친팡. 이를 통해 거이란이 강우쓰를 사칭했음을 알게 됨.</li> </ul>
5장 당대의 수녀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루친팡이 S대학을 방문한 후, 거이란, 강우쓰, 쉬칭(徐晴)이 함께 사는 기숙사 방문.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진하이취안(金海泉)을 냉대하는 강우쓰 발견.</li> </ul>
6장 완전히 다른 세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이란, 강우쓰, 쉬칭 세 여학생의 판이하게 다른 외모, 성격과 애정관 묘사</li> </ul>
7장 생활이 그녀를 기만한 적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우쓰를 사랑하는 진하이취안에게 문혁 시기 안루푸와 사랑에 빠졌다 버림받고 기만당한 강우쓰의 과거를 듣게 됨.</li> </ul>
8장 정신적 아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우쓰의 생산대 시절 회고: 지식인 샤멍푸(夏孟浦)의 비참한 운명과 그에게 감화를 받은 강우쓰의 '신앙의 위기'와 《성경》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된 과정 등을 들음.</li> </ul>
9장 '사랑'의 독이 든 싹이 폐허 위에 움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이란과 뤄순커우(旅順口)에 놀러 갔다 비를 피해 들어간 토치카에서 그녀와 키스할 뻔하고 양심의 가책과 혼란을 느끼는 루친팡 묘사.</li> </ul>
10장 하느님은 사랑을 제약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을 퇴치하겠다는 목표로 자가 접종 테스트 후 고열과 부작용에 시달리는 진하이취안. 그를 걱정하는 강우쓰가 병원에 가도록 설득하는 루친팡. 고난의 시기 조강지처 루야룽(盧雅容)과의 사랑에 대한 회고와 자책감에 빠진 루친팡.</li> </ul>
11장 사랑이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혁 시기 지린성(吉林省) 귀얼뉘쓰첸치(郭爾羅斯前旗) 생산대 정착 후 류례(劉烈)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위해 도시 직장 배정을 양보하고 이후 사고로 장애인인 된 류례와의 사랑을 이어가는 쉬칭의 지고지순한 사랑 묘사.</li> </ul>
12장 이진 결코 농담이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루친팡이 바닷가 바위틈에서 안루푸와 희희낙락하는 방탕하고 이기적인 거이란의 본모습을 목격하고, 호텔에서 그녀의 가식과 흉계를 폭로하고 훈계.</li> </ul>

6) 이 작품은 원래 '내부 참고'의 형식으로 등장했어야 한다. 기자가 상당히 까다롭고 민감한 문제에 봉착했기에, 취재 과정에서 뜻밖에도 무서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 위험에 처했다. 그는 '내부 참고'를 탈고해 완성할 용기가 없어 줄행랑을 놓았다. 몇 개월 뒤, 기자가 우연히 이 일을 언급하며 이를 소설로 써서 발표하면 유익한 점이 있을 거라 느끼고 불안전한 원고를 보여주었다. 신사협정을 맺었기에 그의 실명을 밝히면 안 된다. 모든 인물의 실명을 감춘 것 외에는, 이 소설을 실재하는 인물과 사실로 읽어도 될 듯하다. (這篇作品本來應當以“內參”形式出現。應當承認，記者碰到了一個相當棘手、相當敏感的問題，以至於在他采寫的過程裏，本人竟然意想不到地險些掉進可怕的漩渦。他沒有勇氣把這篇“內參”殺青定稿，便逃之夭夭。事隔數月，記者偶然提起此事，感到寫成小說發表，或有益處，於是出示殘稿。不過有個君子協定，不准披露他的真實姓名。這篇小說，除掉所有人物真名隱去以外，似可作為真

## 2.2. 기성세대 인물 형상

S대학 총장 캉핑(康平) 부부, 작중 주인공인 베테랑 기자 루친팡(陸琴方), 그리고 문혁 시기 도덕적으로 완벽한 지식인 샤명푸(夏孟浦)는 7~80년대 전변기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세 전형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대 중국의 격변을 온몸으로 겪고 고난에 찬 인생길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른 전형적인 지식인이다.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견지하며, 이를 청년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설교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이들 기성세대는 과거 고난과 역경 속에도 개별 인격의 완전무결함과 강한 도덕성을 추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이를 끊임없이 강요한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우국우민(憂國憂民)의 정신이 이들에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굳은 신념과 지식인 정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80년대 초반의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위치를 끊임없이 재조정하는 자기 정위(定位)의 자세가 부족한 '경직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 2.2.1. 캉핑과 그의 부인 푸윈(傅雲)

캉핑은 노혁명이 출신의 '나이든 정통'("老正統")이자 다룬 S대학 총장이다. 환갑이 넘은 노인이지만 문혁 시기 '5·7 간부학교'에서 동고동락한 45세의 루친팡과는 망년지우이다. 평생 교육계에 몸담았고 도덕적 모범이 되는 전형적인 지식인이다. 부인 푸윈(傅雲) 역시 평생 교육에 종사하였다. 이들 부부는 "제자가 스승만 못할 필요는 없다(弟子不必不如師)"는 진리를 믿고, 청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당위의식을 견지한다.

人眞事去讀。) (張笑天, 《公開的“內參”》, 《張笑天文集 中篇小說卷 1》, 吉林人民出版社, 2002.09, 544쪽. 이하 작품 원문을 인용할 경우 페이지만 기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와 행위 방식은 상명하달 식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청년 세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들의 입장과 사고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결여되었다. 이들 부부는 과거 사회주의 혁명과 신중국 건설을 위해 헌신했던 노세대 지식인을 상징하며, 청년 세대와 '세대 갈등과 세대 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전형적 인물 형상이다.

그들은 문혁 종결 이후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 등장한 청년 세대의 사고와 행위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청년들에게 '낮쌌'만 느낄 뿐<sup>7)</sup>이고, 국가의 동량지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당위의식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초조해한다.<sup>8)</sup> 이들은 특히 청년들의 '성 해방'("性解放") 의식에 대한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다. 결국 자신보다 어린 세대이자 청년들의 존경을 받는 유명인사 루친팡의 권위에 기대어 청년들을 계도하려 한다. 이에 루친팡에게 '내부 참고' 기사를 쓰도록 재삼 부탁하며, 루친팡이 다룬에 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2.2.2. 샤멍푸(夏孟浦)

작품에서 샤멍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캉핑의 딸 캉우쓰의 생산대 시절을 회고한 8장 <정신적 아편>에서만 묘사된다. 하지만 캉우쓰가 존경하는 대상이자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 즉 '도덕적 지식인'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명망 높은 철학과 교수였다 1969년 하방돼 부조리가 판치는 가혹한 환경에 처해있으면서도 지식인의 양지(良知)와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강한 내면의 소유자이다.

7) 근래 들어 그는 노이로제에 걸렸다. 초조해 죽을 지경이었고, 현재의 대학생들이 너무 낮설게 느껴졌다. 그는 낮익은 길을 달리는 교육은 효과가 없다고 여겼다.(近來他得了神經官能症——他急得不行, 感到現在的大學生太陌生, 他視爲輕車熟路的教育經不靈了)(546쪽)

8) "지금은 틀렸어. 초조해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하면 꼬박 밤을 새지. 국가가 수천 명의 학생을 자네에게 맡긴다네. 잘하면 10년 뒤에 모두가 동량지재가 되지. 잘못 하면 조상의 무덤을 파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現在不行了, 心焦啊, 一失眠就是一整夜. 國家把幾千個學生交給你, 弄好了, 10年後都是棟梁材: 弄不好, 誰知道是不是掘祖墳的主兒。") (563쪽)

작품에서 사명푸는 캉우쓰가 정착했던 슈수이(秀水) 대대로 송환돼 각종 비판 집회에서 고초를 겪는다. 성치 않는 몸으로 온종일 밭에서 일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도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굶다시피 하면서도 양심에 거스르는 일은 추호도 하지 않는 고결한 지식인의 전형<sup>9)</sup>으로 묘사된다.

굶주림과 병마로 인해 문혁기에 사망하지만, 그의 고결하고 깨끗한 내면세계와 그가 남긴 성격은 이후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 없던 캉우쓰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 난세의 부조리한 시대 환경에도 순결한 영혼과 완전한 도덕을 체현하는 이러한 지식인 형상이 작가가 강조하려는 이상적 지식인의 전형일 것이다. 인간의 본질과 가치, 삶의 의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청년 세대의 본보기를 자신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체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 2.2.3. 루친팡

루친팡은 작품 전개에 있어 주인공이자 작중 인물들의 사유와 행위를 판단하고 관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5세로, 연령상으로 윗세대인 캉칭부와 아랫세대인 20대 중반의 세 여대생 사이에 놓여 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세대 간 ‘중간물’이자 교량 역할로 그의 나이를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발표 시기인 1982년에 작가가 43세였음을 감안하면, 작가의 사유와 정서, 세계관이 루친팡에게 가장 잘 투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년의 연령대는 노세대와 청년 세대의 사유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가장 잘 이해하며, 양자 사이의 ‘세대 차이’와 갈등을 조율하며 소통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sup>10)</sup>

9) “나는 일생을 청백하게 살았고, 바늘 하나 실 한 오라기도 남의 것에 손 댄 적이 없었네. 양심을 저버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사익을 꾀한 일을 한 적도 없네.”(“我一生都是清白的，沒沾過別人一針一線，沒昧著良心幹過一件損人利己的事。”) (591쪽)

10) 작품을 발표한 4년 뒤, 작가는 세대 간 중간물로서 청년 세대가 갖는 장점과 곤혹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나는 올해 46세로, 5-60세 세대의 추구·신앙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들과 수많은 공통점이 있다. 2-30세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5-60세 사람과 2-30세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를 세대 차이라 부른다. 내가 처해 있는 중간 상태의 사상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과 옛 것, 급진적인 것, 정통적인 것 모두 병존할 수 있고, 때로는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때로는 서풍이 동풍을 압도하니, 머릿속의 처방이 불시로 비율이 바뀐다.”(張笑天, <配方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연령대로,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베테랑 기자'이자 상부에 '내부 참고'를 작성·보고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로 설정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따라서 루친팡은 명성이 자자한 '권위 있는 기자(權威記者)'이자 '사회 문제를 통찰하는 예민한 촉각(有一對洞察社會問題的敏銳觸角)'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청년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기성세대에게도 '정통'으로 인정받는다.<sup>11)</sup> 또한 문혁 시기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동고동락한 아내 루야룽(盧雅容)과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범 가장이자, 평소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스스로를 단속하는 지식인이다.<sup>12)</sup>

루친팡 역시 청년들의 '성 해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한다. "가령 내부 참조 하나를 써서 중앙의 지도자 동지가 대학생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게."<sup>13)</sup>라는 캉핑의 부탁을 받고, '청년들의 갖가지 연애관에 관하여(有關青年的戀愛觀種種)'라는 제목의 '내부 참고' 기사를 쓰기 위해 S대학을 방문하며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하지만 베테랑 기자 루친팡에게도 "대학생의 생활은 비교적 생소한(我對大學生的生活比較陌生)" 영역이었다.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제게 진실한 상황을 모색할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방전을 조제할 수는 없어요. 사회 사조가 생겨나려면서로 적용할 토양과 기후가 존재하며, 사람들이 그 장점이나 파괴성을 똑똑히 인식해야만 각각해서 옹호하거나 배척할 겁니다. 이는 조건이 성숙되면 자연히 이

與“配方文學”>(《張笑天文集 散文隨筆卷》, 吉林人民出版社, 2002), 656쪽)

- 11) “자네는 아주 유명 인사라서 청년들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더군다나 자네는 정통이잖은가. (你是大名人, 在青年人心目中是有位置的, 何況, 你還是正統的。)” (546쪽)
- 12) 언론계와 문계에서 루친팡의 사생활은 엄격하고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의 아내는 평범한 방직공장 직공이지만, 그들은 손님을 대하듯 서로 존중하였고, 고난을 함께 한 친구였다. 루친팡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보수적’이라 불리는 이진 ‘해방적’이라 자칭하는 이진 찬탄을 금치 못했다. 캉핑 총장의 말을 빌면, “자네의 풍격 그 자체가 바로 설득력이 있는 본보기일세.”(在新聞界、文藝界, 陸琴方的私生活是嚴謹的、無可挑剔的。他的妻子是個普通紡織女工, 但他們相敬如賓, 有過患難之交。談起陸琴方的婚姻家庭, 無論被稱爲“保守的”, 還是自稱爲“解放的”, 都不能不贊佩。用康平校長的話來說: “你的作風, 本身就是具有說服力的典範。”) (546쪽)
- 13) “怕怕寫一條內參, 讓中央領導同志了解一下大學生的現狀。” (546쪽)

루어지는 일이라서 강요할 수는 없어요.”<sup>14)</sup>

윗세대에게 찾아볼 수 없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사회적·역사적 콘텍스트의 변화와 흐름, 진실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찰과 인식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사조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에 대처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다. 따라서 ‘처방전의 조제’로 상징되는 이전 시기의 권위주의적이고 절대적인 정책과 강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청년들이 사랑스럽다 느꼈다. 그들의 관점은 얼핏 들으면 놀랍지만, 사실은 근원이 있는 물과 나무 같아서 그들을 알고 이해해야 그들을 인도한다 말할 수 있다.<sup>15)</sup>

하지만 중간 세대에 속하는 루친팡에게도 청년 세대의 사유와 세계관은 ‘골드바흐의 추측(哥德巴赫猜想)’<sup>16)</sup>처럼 해결하기 힘들지만 흥미를 자아내는 수수께끼와도 같다. 따라서 관심과 애정의 끈을 유지하며, 두 세대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이해 제고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루친팡의 사유 방향 역시 자기 세대가 믿는 바른 길로의 ‘인도’로 귀결된다. 결국 이들 세대 역시 자신들이 견지하는 신념과 경험, 사회 질서와 관행에 입각해, 두 세대 간의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사유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남들에게 이상적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루친팡은 취재를 위해 여대생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 세대와는 다른 청년 세대들의 사고와 인식, 이를 배태한 과거 문혁 시기의 불행한 경험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고하고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무력감 속에 흔들리고 고뇌

14) “你不要管我，我自冇辦法摸到真實情況。不過有言在先，我可配不出藥方來。一種社會思潮產生，總冇土壤、氣候相適應，只有當人們都認清它的好處或破壞性時，大家就會自覺起來擁護或抵制。這是水到渠成的事，不可強求。”(569쪽)

15) 他覺得這些青年是可愛的。他們的觀點乍聽起來很嚇人，其實都是有源之水、有本之木，只有了解他們，理解他們，才能談到引導他們。(586쪽)

16) 골드바흐의 추측(Goldbach's conjecture)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정수론의 미해결 문제로,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캉우쓰가 무슨 경건한 신자도 아니다. 그녀는 신앙의 위기 이후 수렁에 빠졌을 뿐이다. 이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진흙이라도 입에 쑤셔 넣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녀처럼 악몽 속에 있는 듯한 청년들이 또 있는가? 설마 1980년대 대학생인 그녀를 계몽할 필요가 있던 말인가?/ 루친팡은 미래사장에 내던져진 파도 거품처럼 자신이 그렇게 무능하고 쇠약하다고 처음으로 느꼈고, 쉼 목소리로 헐떡이고 있었다.....17)

문혁 시기의 불행한 경험으로 인해 '신앙의 위기'에 빠지고, 의지할 곳 없는 극도의 절망적 상황에서 성경을 통해 자기 위안과 구원을 찾으려는 캉우쓰를 보고 루친팡이 느끼는 극도의 무력감이 드러난 문장이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청년들의 '인도자'이자 '계몽가'를 자임했던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절망감이 느껴진다. 따라서 과거 문혁 시기에 생겨난 트라우마로 인해 괴로워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을 보이면서도, 그저 공허한 설교식의 권고만 할 수 있을 따름<sup>18)</sup>이다.

또한 뒷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보이며, 공인된 '사상 해방형' 선구자를 자처하는 이들 중년 세대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그들이 공공 영역과 공공 담론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에 대한 의견과 관점을 표명하는 것은 금단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과 같아서, 끊임없이 회피하거나 불명확한 태도를 표명<sup>19)</sup>하는 자기 검열의 기제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한다.

17) 當然，康五四不是什麼虔誠的教徒。她不過陷入了一種信仰危機後的泥坑裏，這宛如一個行將餓死的人，即或抓一把爛泥也想填到嘴裏去一樣。像她這樣似在噩夢中的青年還有沒有呢？難道有必要對她這個20世紀80年代的大學生啓蒙嗎？/ 陸琴方第一次感到自己是那樣無能，那樣衰弱，像摔在海灘上的浪沫，嘶啞地喘息著…… (592쪽)

18) “언젠가는 자네가 자기기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거야. 과거에 자네에게 신앙의 위기가 생긴 건 이해할 수 있네. 하지만 그런 재난과 참화는 이미 지나갔으며, 선열들이 그것을 위해 분투한 이상이 수포로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것을 자네는 믿어야만 하네.”(“總有一天你會意識到你在自我欺騙。以往，你發生信仰危機是可以理解的，可是你應當相信，那樣的災難和浩劫已經過去了，先烈們爲之奮鬥的理想是不會付之東流的。”) (592쪽)

19) 자신은 공인된 '사상 해방형'이고, 심지어 선구자적인 느낌조차 있다. 유독 사랑이라는 영역만 그는 금역으로 놓고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태도를 드러낸다.(自己是被公認的“思想解放型”，甚至有點先驅者的味道。惟獨在愛情這個領域，他列爲禁區，很少涉及，或

그는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는 확고한 구시대 도덕의 옹호자를 자처한다. 따라서 '결혼'과 '사랑'을 별개로 보고, 집안 환경과 출신 성분에 입각해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사회 관습에 대한 강한 반발과 비판의식을 피력하는 캉우쓰와 거이란에게 모호하고 공허한 답변만 내놓을 뿐<sup>20)</sup>이다. 이들 신세대 청년들의 신랄한 비판을 들으면서 사랑과 결혼 등에 대한 모순적인 자신의 내면세계를 재확인할 뿐, 은폐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sup>21)</sup>한다.

하지만 그에게 끊임없이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거이란과 뤄순커우(旅順口)에 놀러갔다 키스할 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잠시 그녀에게 연정을 품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오욕칠정이 있는 인간임을 깨닫는 동시에, 조강지처 루야룽의 사랑과 헌신을 떠올리며 부단히 자책감에 빠지는 과정을 거쳐, 다시 자신의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회귀한다. 소설 결말에서 자신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피력하던 거이란의 목적이 자신의 명리를 취하기 위해서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도덕적 훈계와 지식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자세 등을 설파하며 현실 속 지식인 본연의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루친팡의 인물 형상은 윗세대 인물 형상과는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인다. 윗세대가 이전 시기 기존 주류 문단이 획정한 '높고 크고', '완벽하며', '돌출'된 '주류 인물'의 형상과 닮아있다면, 루친팡은 도덕적 신념과 양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시대 현실과 마주하며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뇌하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보다 '인간적인' 지식인에 한결 가깝다.

者不明確表態。) (569-570쪽)

20) “자네는 섞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네. 결혼과 사랑은 하나의 일하면서도 완전히 같은 일은 아니네. 자네가 말한 문제 중 어떤 것들은 봉건 잔재가 초래한 것이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는 걸 배척하지는 않는다네.” (“你不能混爲一談。婚姻和愛情是一回事，又不完全是一回事。你說的問題，有些是封建殘餘造成的，這並不排斥有真正的愛情。”) (576쪽)

21) 넌 이 아가씨의 모난 관점들이 다 허튼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설마 불변의 진리라 여겨지는 현존하는 결혼 가정 모두가 흠잡을 데가 없단 말인가? 내면에 원래 모순이 존재하던 사람은 모순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제일 좋다. 마치 신의 존재를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향을 피우려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你能說這姑娘的某些有棱角的觀點都是一派胡言嗎? 難道現存的被認爲天經地義的婚姻家庭都是無懈可擊的嗎? 內心本來有矛盾的人最好不去揭示矛盾, 如同對神祇半信半疑的人最好不去燒香是一個道理。) (561쪽)

### 2.3. 청년 세대 '대학생' 지식인 형상

《공개된 '내부 참고'》의 스토리 구조에 있어 또 다른 축은 청년 지식인들의 사랑과 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S대학 의대에 재학 중인 사상, 기질, 성격이 각기 다른 세 여대생의 형상을 통해, 청년 지식인 세대의 사랑과 생활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감정, 내면세계를 드러냈다.

그녀들은 당시 어디서든 쉽게 발견되는 부정적 면모의 청년들, 즉 선글라스와 나팔바지로 무장한 채 디스코만 추며 무조건적인 서양 문물과 유행 사조만 좇는 천박하고 무지한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갖는다. 그녀들은 자신만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형성하고 있는 '사고하는 젊은 세대'의 전형이다.<sup>22)</sup>

“저희 기숙사 방에는 침례하게 대답하는 세 관점이 존재해요. 첫째는 정통파예요. 인생에 진정한 사랑은 단 한 번만 있다는 것을 믿고 백년해로를 주장하며, 설사 견해가 갈려도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를 생각하려 하죠. 이런 관점이 당신의 구미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패념치 마세요. 둘째는 엄격히 말해 허무주의나 승려주의라 부를 수 있죠. 그들은 세상엔 본디 진정한 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며, 이성에 대한 서로간의 끌림과 인류 후대를 번성시키려는 의무만 존재할 뿐이고, 사랑은 문인들이 날조한 명사일 따름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관점은 세상에 사랑이 있는 걸 믿지만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sup>23)</sup>

22) 만약 그녀들이 보자마자 천박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느껴지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다. 공공롭게도 그녀들은 모두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였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야 그렇다 쳐도, 렌즈 위에 붙은 영문 브랜드를 죽어도 떼려 하지 않고 이게 수입품이라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루친팡은 늘 거리에서 맛닥 뜨린다. 너무 무지하고 가련하다./ 대학생들은 이런 부류가 아니다.(如果她們是那種一望就覺得淺薄無知的人, 問題倒好辦她們恰恰都有自己的思考方法, 形成了自己的觀點。陸琴方常在街面上遇到這樣的青年人, 戴著太陽鏡也罷了, 貼在鏡片上的英文商標死也不肯揭去, 無非是告訴人家: 我這是純牌的洋貨! 太無知, 太可憐了./ 大學生們不是這種人。) (568-569쪽)

23) “我們寢室裏就有三種針鋒相對的觀點。第一種是正統派, 相信真正的愛情人生只有一次, 是主張白頭偕老的, 即使有了分歧也要想著‘一日夫妻百日恩’。您別在意, 我想這種觀點是合您口味的。第二種嘛, 嚴格說是虛無主義, 或者又叫僧侶主義。他們認為世界上本來不存在什麼真正的愛情, 有的只是異性相吸引, 是繁衍人類後代的義務, 愛情是文人杜撰出來的名詞兒。第三種觀點, 相信世界上有愛情, 但不是一次, 可能有多次……” (560쪽)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그녀들은 사상 해방과 ‘성 해방’의 시대 조류 속에서 사랑에 관한 각기 다른 세 관점을 대표하며, 청년 세대의 정신 면모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본고에서는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사랑에 관한 서로 다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세 유형, 즉 ‘정통파’(쉬칭(徐晴)), ‘허무주의’ 혹은 ‘승려주의’(강우쓰(康五四)), ‘성 해방론자’(거이란(戈一蘭)) 이 세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그녀들과 ‘사랑’과 ‘연애관’의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힌 세 명의 젊은 남성 형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성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청년 지식인 내면의 정신세계와 이러한 내면세계의 기저에 문혁 시기의 부조리와 시대 환경이 드리운 상처가 있음을 고찰하는 동시에, 앞서 분석한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 2.3.1. 쉬칭(徐晴): 고상한 ‘정통파’

쉬칭은 베이징 시 위원회 판공청 고위 간부 쉬푸(徐頰)의 딸로, 든든한 출신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생각이 신중하며 온화하고 관대한 태도를 견지한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인생에서 한 번만 있다는 것을 믿고 백년해로를 주장”하는 ‘정통파’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고상’한 청년 형상을 대표한다.

그녀는 문혁 시기인 1973년 지린성(吉林省) 귀얼뤄쓰첸치(郭爾羅斯前旗) 생산대에 정착한 뒤, 고난을 함께 한 류례(劉烈)와 사랑에 빠진다. 이들은 고난과 절망으로 점철된 이 시기에 서로 “이해하고 환난을 같이 하며 세워진 사랑(理解, 患難與共建立起來的愛情)”을 시대 환경과 서로의 처지가 급변한 80년대까지 이어나간다.

생산대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본분을 지켰던 쉬칭은 도시로 배정받을 수 있는 1976년의 마지막 기회조차 잡을 수 없었다. 정치적 비판을 당해 수감 생활을 하던 부친으로 인해 도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다.<sup>24)</sup>

24) 마지막 직공 모집표가 공사에 벌써 하달됐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쉬칭은 차간화 초원의 어위로 홀로 달려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나갔고, 농촌에 하방된 시간도 더 길었으며, 어떠한 몽고족

그녀의 연인 류레는 바이청쯔(白城子) 지역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지청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쉬칭을 위해 도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직장 배정의 기회를 과감히 양보하고, 생산대에 남아 수의사가 된다. 이후 1979년 토네이도가 불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말들을 안전한 곳으로 몰고 가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 류레는 사랑하는 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절교를 선택한다.

문혁 종결 이후 아버지의 복권과 승진, 자신도 S대학 의대에 진학해 누구보다도 전도양양한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쉬칭은 출신성분의 차이와 순탄치 못한 미래를 감내하고, 환난 중에 싹튼 사랑을 견지하며 류레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견지한다. 이를 통해 '정통적'이고 '고상'한 사랑에 대한 믿음과 삶을 견지하는 청년 지식인의 면모를 드러낸다.

### 2.3.2. 강우쓰(康五四): 불행한 '승려주의자'

강우쓰(康五四)는 강칭의 막내딸로, 문혁 시기 경험한 사랑의 기만과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이성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진정한 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은 문인들이 날조한 명사일 뿐"이라는 '허무주의' 내지 '승려주의'에 빠진 청년 형상을 대표한다.

강우쓰는 문혁 시기 장허현(莊河縣) 인근 생산대에 정착하였고, 이 시기 감언이설로 사랑을 속삭이던 안루루(安路路)에게 기만과 농락을 당하고 버려진 뒤, 남자를 믿지 않고 '수녀'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냉담한 태도로 일관한다. 문혁 시기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지식인 사명푸에게 감화되고,

---

어지와 아빠라도 쉬칭 이 아이는 본분을 지킨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표현만 비추어 뽑는다면 그녀는 선두주자로 도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치적 조건이 너무 나빴다. 그녀의 아버지는 '구 베이징 시 위원회'에서 났다고 할 수 없던 간부였고, 덩튀·우한을 비판할 때 '삼가촌'과 연루돼 압송되었다.(但是最後一批招工表已經下達到公社了, 這是最後一次機會了。徐晴一個人跑到查幹花草原的敖包上哭起來。她知道自己沒有一點希望了。她出工比別人多, 她下鄉時間比別人長, 任何一個蒙古族額吉、阿爸都說徐晴這孩子本分。如果按表現, 她第一批就可以回城。然而, 她的政治條件太差, 她的爸爸是"舊北京市委"一個不算低的幹部, 在批判鄧拓、吳哈的時候, 就掛到了"三家村"的店簿子上, 被押到了監獄中。)(607쪽)

“고통의 심연 속에 신앙이 생겨난다(痛苦的深淵裏產生信仰)”는 말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신앙’이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면서 사명푸가 죽을 때 남긴 성경에서 잠시 마음의 위안을 받는 여학생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문혁 시기의 경험과 좌절, 특히 사랑의 배신과 기만으로 인해 현실 사회에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은 없으며, 문학과 예술에서나 존재하는 허구적인 것이라는 그녀의 인식<sup>25)</sup>은 보는 이의 안타까움과 씩씩함을 자아낸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왜곡된 애정관을 지닌 그녀를 사랑하는 진하이취안(金海泉)으로 인해, 그녀의 이러한 절망감도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음이 암시된다.

진하이취안은 캉우쓰와 같은 과 동급생으로, 성실한 태도와 좋은 인품, 빼어난 성적을 고루 갖춘 모범생이다. 인류를 괴롭히는 불치병인 암을 퇴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심지어 백신을 자가 접종하며 테스트하는 등 불요불굴의 의지와 강한 인류애, 헌신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그는 사랑의 상처 때문에 모든 남자를 불신하며, 분명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는 캉우쓰의 과거를 알고 있다. 하지만 한결 같이 변치 않는 태도로 그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함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정조 때문이에요? 아니요, 저는 정조 따위는 중시하지 않아요. 제가 한 사람을 볼 때는 그녀의 영혼을, 그녀의 성취욕을 봅니다.”<sup>26)</sup>

캉우쓰에 대한 그의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 말이다. 여기서 그는 기성세대와 ‘정조’만을 중시하는 봉건적 세계관과는 다른 신세대적 가치관을 드러낸다.

25) “제가 보기에 사랑은 당신들 문인들이 만들어낸 명사이고, 사랑은 소설과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죠. 작가들이 설정한 순수한 사랑 공식에 따라 생활 속에서 찾으면 열이면 열 모두 벽에 부딪치고 실망할 거예요.”(“我看, 愛情是你們文人製造出來的一個名詞兒, 愛情只在小說裏、電影裏有。按照作家們設計出來的純真愛情模式, 到生活裏去找, 十個有十個要碰壁, 要失望。”) (576쪽)

26) “爲了貞操嗎? 不, 我不把什麼貞操看重, 我看一個人是看她的心靈, 是看她的事業心。” (585쪽)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녀의 자아 발전과 성취욕이 얼마나 진취적인지라는 관점이다. 육체적 순결보다 정신적 고결함과 순결을 중시하는 신세대적 사고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그는 캄우쓰를 진정 사랑하면서도 그녀에게 자신을 사랑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 배려와 성숙한 마음가짐의 소유자이다.<sup>27)</sup> 결국 암 백신 자가 접종 부작용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한 진하이취안에 대한 걱정과 관심, 사랑의 감정을 안은 채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가며, 이를 통해 이들의 미래가 사랑으로 결실 맺고 그녀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을 작품에서 암시한다.

### 2.3.3. 거이란(戈一蘭): 타락한 '성 해방론자'

거이란은 작품 전반부에서는 S대학 의대에 재학 중인 미모와 학식을 겸비한 재원으로, '신여성'이자 '사고하는 세대'로서 자기 주관과 사상을 가진 적극적인 청년 형상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예리한 언사와 대담한 사상, 방대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고, 기성세대의 모순된 사유를 과감히 지적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신선함과 거침없는 탐색을 보인다.<sup>28)</sup> 또한 “자기장의 중심(強磁場的中心)”이라 불리울 만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흡인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50년대 소방 호스로는 80년대의 불길을 끌 수 없을 거예요.”<sup>29)</sup>라는 주장을 통해 변화된 시대 환경을 강조하고, 기성세대의 인식과 관념틀로는 청년 세대를 이해할 수 없고, 전변하는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사랑과 성에 관한 관점은 가장 개방적이고 전위적이기까지 하다.

27) “제가 그녀에게 잘 한다는 걸 그녀가 알아요. 그녀가 저를 좋아할지 여부는 그녀의 자유라서, 전 그녀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我對她好, 她知道。她喜不喜歡我, 那是她的自由, 我不會勉強她的。”) (586쪽)

28) 그녀는 사고하는 그룹의 사람이다. 그녀의 관점은 신선하고 결단력이 있지만 함부로 생트집을 잡지 않았으니, 적어도 루친팡 같은 연령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의 용감한 탐색은 그녀가 루친팡과 같은 사람의 내면의 비밀과 갖가지 자기모순적인 곳들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她是思考者一群裏的人。她的觀點新鮮、潑辣, 但不胡攪蠻纏, 至少是陸琴方這種年齡的人可以接受的。她的勇於探索, 表現在她能夠道出像陸琴方這種人內心的隱秘以及種種自相矛盾的地方。) (551-552쪽)

29) “50年代的水龍頭, 大概澆不滅80年代的火焰的。”(558쪽)

평등한 '해방형' 신여성의 가치를 내걸고<sup>30)</sup>, "세상에 사랑이 있는 걸 믿지만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조까지 서슴지 않으며, 루친팡과의 대화에서 '결혼'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 사유하는 관점과 사회 관습에 따라 사랑 없는 결혼을 하는 봉건적 풍토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sup>31)</sup>

그러나 결말에서 갑자기 자신의 미모를 무기 삼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몸까지도 파는 음탕하고 추악한 본 모습,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급 여자 불량배(高級女流氓)'의 면모가 폭로되며<sup>32)</sup> 작품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장식한다.

'신여성'의 해방 가치를 내걸고 그럴 듯한 이론들로 남들을 설득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장에 능한 그녀의 음험하고 위험한 속성을 남들은 쉽게 간파할 수 없다. 따라서 그녀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은 극히 크다.<sup>33)</sup> 이런 의미에서 작가는 새로운 시대에 등장할 법한 새로운 유형의 반

30) "설마 남녀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면 남자가 돈을 내야만 한다고 법으로 규정됐나요? 당신 눈에 여성은 남성의 부속품에 불과하고 돈으로 사올 수 있는 것인가요?"("難道一男一女吃飯, 法定該由男人出錢嗎? 在您眼裏, 女人不過是男人的附屬品, 也是金錢可以買來的, 是不是呢?") (558쪽)

31) "제겐 고정된 관점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보호·유지하려 노력하는 결혼 가정이 대개는 봉건 사유제적인 색채를 띠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왜 의지하고 종속돼야 하죠? 제가 보기에 수많은 가정이 남녀가 적령기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 관습에 따라 결합되었고 사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일단 한쪽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부도덕하고 타락한 것으로 간주돼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하죠."("我沒有什麼定型觀點, 但我覺得你們所努力保護、維持的婚姻家庭, 很大程度是帶有封建私有制色彩的, 一個人爲什麼一定要依附、從屬於另一個人? 依我看, 好多家庭是按男大當婚、女大當嫁的社會習慣組合起來的, 與愛情格格不入。一旦有一方愛上了別人, 就被認爲是不道德的、墮落的, 群起而攻之。") (559쪽)

32) "돈을 원했다면 당신을 찾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할게. 당신을 찾은 건 당신이 남보다 뛰어난 자본이 있어서야, 알겠어요? 당신의 큰 붓을 빌려 쓰려고. 당신이 응낙하면 우리 둘 다 다치지 않아." (……) "그럼 당신에게 하찮은 재주를 보여 드리죠!" 거이란이 말했다. "당신을 조금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아요. 당신이 날 위해 치켜세우는 문장을 써주면 돼. 만향을 불러일으키는 글 두 편만 써서 《인민일보》에 발표하면 돼요. 당신과 이름을 공동으로 올려도 돼요. 이런 요구가 높지는 않죠? 당신이 내게 사다리 하나만 세워주면 오늘 이후 당신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要錢, 我不找你。老實說吧, 我找你是要出人頭地的資本, 懂嗎? 借你的大筆用一用。你答應呢, 咱們兩不傷。") (……) "那, 我讓你當場獻醜!" 戈一蘭說: "一點都不叫你犯難, 只要你替我寫吹捧文章, 給我兩篇叫得響的, 替我拿到《人民日報》上去發表, 和你聯名寫也可以, 這要求不算高吧? 你只給我豎這麼一張梯子, 從今後我不再找你的麻煩, 我一輩子忘不了你的恩情。") (616쪽)

면 인물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안루루는 이런 거이란의 '애인'으로 등장한다. 그는 과거 문혁 생산대 시절 캉우쓰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도시로 귀환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매물찬 과거를 지닌 비열한 인물이다. 안루루의 인물 형상은 거이란과 더불어 '성 해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인물들의 허위성과 천박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안루루는 80년대 초반 잇따른 논전을 불러일으키며 유명해진 '몽롱시인'으로, 미국으로 장기 출국할 예정으로 다롄에 여자친구를 만나 1주일간 머물 예정으로 가는 기차에서 루친팡과 조우한다. 그는 공공연히 반체제 인사인 '중국의 술제니친'과 예술가연 하지만, 천박하고 자기과시적인 인물로 전형적인 '성 해방형'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결혼과 사랑에 대한 왜곡된 '해방'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sup>34)</sup>

안루루는 거이란보다도 사회적 위해성이 더 큰 인물이다. 자신도 타락한 인물이지만, 자신의 저속하고 비도덕적인 사유와 행위를 정당화하며, 청년들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명성과 영향력을 지닌 거짓 시인<sup>35)</sup>이기 때문이다.

33) 거이란 형상이 갖는 위험성을 작가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내 필치 하의 거이란은 ‘해방형’ 신여성의 기치를 내세우고, 예민하고 총명해보이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며 도덕 기풍을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는 예술적 전형화이다. 그녀의 위해성(危害性) 역시 바로 여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간파되지 않는다. 몇몇 작품들 속의 악역은 등장하자마자 흉악한 용모에 도둑놈, 화냥년으로 묘사되는데, 독자와 관객이 종종 식상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화장을 하고 꾸민이를 품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다. 내가 거이란이라는 형상을 설계한 것은 이러한 목적에 근거한 것이다.”(張笑天, <就《公開的'內參'》答讀者>(《當代》, 1982年04期, 254쪽.)

34) ① “하지만 이혼했어요. 한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가정과 혼인의 속박을 깨뜨려야 합니다.”(“但是離了。一個人要搞事業, 就要冲破家庭和婚姻的束縛。”) (549쪽) ② “물론이죠.” 안루루는 매우 긍정하며 말했다. “왜 칼을 목에 차야 하야 하죠? 저와 그녀는 각자 무대로 올라가는 낯선 두 사람과 같아서 알게 되면 마치 진짜처럼 함께 무대에서 공연하죠. 화장을 지우면 제 갈 길을 가고, 피차 조금의 그리움도 남기지 않죠. 이것이야말로 해방이라 부르죠.”(“……”) “이건 쌍방의 일이죠. 가지고 노는 거라 말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녀를 가지고 놀았다면, 거꾸로 그녀도 나를 가지고 놀았으니 1대1이죠.”(“當然。‘安路路說得十分肯定: ‘爲什麼要把大枷套到脖子上呢? 我和她, 像是各自走到舞台上的兩個陌生人, 相識了, 同台演戲, 像真的一樣: 卸了妝, 各走各的路, 彼此連一點思戀都不留, 這才叫解放。’ (……) ‘這是雙方的事情。說玩弄也可以, 我玩弄了他, 反過來她也玩弄了我, 一比一。’) (549-550쪽)

### 3. 《공개된 '내부 참고'》의 역사적 부침

장샤오펜이 《공개된 '내부 참고'》를 발표한 1980년대 전반기는 신시기 문학의 1단계에 속하는 시기로, “사상 해방과 ‘통제’의 느슨함”과 “통일된 문학 규범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 사이의 “‘규범’과 ‘느슨함’의 긴장된 모순”이 공존한 시기였다.<sup>35)</sup>

‘4인방’의 실각에 따라 3년을 침묵한 이후 ‘주류 이론’에 대한 완강한 견지는 신시기 ‘주류 문학’의 구축이 특정한 역사 문화 환경을 ‘초월’할 수 없음을 잘 설명한다.<sup>37)</sup> 1980년대 초중반 신문학 질서 구축 과정에서 관방을 대변하는 문예계에서는 ‘문학’ 서사 패권이 과산한 뒤 사회에 더욱 유효하면서 응집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통일된 문학 질서와 규범 수립을 위해 초조해했다. 새로 등장한 덩샤오핑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신중국 성립 이래 지속돼 온 정치/문학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주류 작가’와 ‘주류 서사’의 출현을 독려하고 ‘폭로와 광명’의 관계의 비율을 확정 지었으며, 정확한 ‘인생관’ 및 ‘건전하고’ ‘발전적’이며 ‘낙관’적인 문학 정신을 제창하는 등의 1950~70년대의 문학 법칙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고 보충하였다.<sup>38)</sup>

이에 따라 이 시기 주류 비평은 ‘동일성의 법칙’에 따라 관방 담론의 ‘정전 체제’ 속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상혼 문학’, ‘반사 문학’과는 밀월 관계를, ‘통

35) 몇몇 타락한 불량배는 결코 두렵지 않다. 설령 500년이 더 지나더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어쩌면 존재하겠지. 무서운 건 아무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기꺼이 타락하지만, 겉으로는 출중해 보이는 이론을 만들어 지지대로 삼으려하는 것이지. 이것이 청년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가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出幾個墮落的流氓並不可怕, 即使再過500年, 道德淪喪者怕也還會有吧。可怕的在於像安路路這種人, 自己甘於墮落, 卻還要造出一種貌似高超的理論當支柱, 這就有可能成為汙染青年靈魂的瓦斯。) (500쪽)

36) 홍즈청 저, 《중국당대문학사》(박정희 역, 비봉출판사, 2000), 150쪽, 164쪽 참조.

37) 程光焯, <文學的緊張——《公開的情書》、《飛天》與八十年代‘主流文學’> (《南方文壇》 2006年 06期, 2006), 15쪽.

38) 程光焯, <文學“成規”的建立——對《班主任》和《晚霞消失的時候》的“再評論”>, 《當代作家評論》 2006年 第2期, 2006, 27-29쪽 참조.

일된 문학 규범'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은 '비판'과 '냉대'를 통한 배제의 규칙을 잠재적으로 형성하였다.

따라서 《공개된 '내부 참고'》 발표 전후로 공개 발표됐던 《비천(飛天)》, 《공개된 연애편지(公開的情書)》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작'들에 대한 일련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는 1983년에 전개된 '정신 오염 제거' 운동 등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따라서 사상해방 운동 이후 급변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신중국 성립 이래의 도식적이고 통일된 문학 규칙의 틀을 답습하는 작품들과 차별성을 드러내며 '다원화' 추세를 반영하던 새로운 창작의 흐름과 주류 문단 사이에 괴리와 갈등이 줄곧 존재하였다.

《공개된 '내부 참고'》 역시 이러한 문단 질서와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선 "공개된 '내부 참고'"라는 제목 자체가 양립하기 어려운 두 단어의 조합이었다. '내부 참고' 자체가 중앙 지도자층의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참고할 가치가 있는 상황을 수집하고 정책을 제정하는 근거를 제공하며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언론사에서 만든 내부 간행물이며, 기밀성 뉴스를 게재하는 간행물이기에 철저한 '비공개' 혹은 일정 기간 동안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sup>39)</sup>이다.

청광웨이(程光燁)에 따르면, '개인 기억'을 문학의 형식으로 대중 앞에 공개한 것은 1979~1983년 사이에 주목할 만한 문학계의 '성대한 분위기'였고, 장샤오옌의 《공개된 '내부 참고'》 역시 그 중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해방 이후 삶의 '의미'를 평가하고, 청년들이 사랑과 인생관, 세계관 등을 포함한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지도한 것은 줄곧 '사설', '논설위원 문장' 등 권위 있는 문체의 '고유 영역'이었으며, 기타 사회 집단 특히 개인이 관심의 관심을 용납하지 않았다.<sup>40)</sup> 따라서 소설의 제목 자체에서 이처럼 민감한 권위 있는 영역을 공공연하게 언급한 것 자체가 불손한 문학적 시도로 간주돼 신랄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39) 耳寶君, <什麼叫內參>(<新聞與寫作> 1985年 08期, 1985), 34-35쪽.

40) 程光燁, <文學的緊張——《公開的情書》、《飛天》與八十年代'主流文學'>(<南方文壇> 2006年 06期, 2006), 17쪽 참조.

이러한 논리에 따라, 《공개된 '내부 참고'》가 《당대》 1982년 1호에 발표된 후 독자들 사이에 열광적인 반응<sup>41)</sup>과 광범위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발표 직후에는 “청년들의 사상을 대담하게 반영하고 사회생활을 비교적 깊이 있게 다룬 작품”, “작가는 독창성을 갖추고 참신한 구상과 친근한 필치로 세 사람이 지닌 시대적 특징을 정성 들여 형상화하였고, 서로 다른 사상적 면모와 성격을 지닌 생동적인 인물이 생동감 있고 시대를 반영하는 소묘화를 구성하였으며, 독자들에게 보기 드문 '내부 참조'를 드러냈다”는 긍정적인 평가<sup>42)</sup>와 작품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 중 '작품의 진실성'과 작중 인물 '거이란'의 인물 형상이 갖는 전형성 여부와 이 인물 형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는 논점이었다. 우한 대학(武漢大學) 중문과 일부 학생들의 좌담회 내용이 권위를 자랑하는 중국 공청단의 중앙 기관지 《중국 청년보(中國青年報)》에 게재<sup>43)</sup>되면서, 비판적 관점이 전국적인 파급력과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비판적 평가에 무게추가 이내 기울어진다.

이 글은 우선 《공개된 '내부 참고'》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이란과 같은 여성 청년을 비판하고, 굳은 지조를 대표하는 쉬칭의 사랑을 긍정하며, 이로부터 정확한 연애관을 제창했으니 취지는 좋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제재로 하는 “청년 학생들에 대한 묘사가 진실함을 잃었고,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의 생활 중 사랑의 비중을 과장하였다. 작가는 대학생의 사랑을 기계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그 중 캉우쓰로 대표되는 금욕주의자와 거이란으로 대표되는 '성 해방'론자 두 부류는 병태적이다. 이 자체가 바로 대학생 형상에 대한 왜곡이며”, “작품은 대학 당 조직의 지도 업무 및 학생의 정치사상에

41) 장샤오론편에 의하면, “소설이 실린 뒤 지금까지 불과 2개월의 시간동안 잇달아 직접 독자 편지를 받았고, 《당대(當代)》, 《소설월보(小說月報)》 편집부에서 전해온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절대 다수의 동지들이 답장을 요구하였으며”, “독자 서신을 보내온 독자의 80%가 청년이었고, 그 중 대학생이 80%를 차지했다”(張笑天, <就《公開的“內參”》答讀者>, 253쪽)고 하니, 대학생 청년 독자층의 열광적인 반응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42) <部分讀者對《公開的“內參”》的反應>, 255쪽.

43) 李昕、張曙紅, <不象我們的生活——武大同學座談《公開的“內參”》>, 《中國青年報》1982.6.12.

대한 진실하지 않은 상황 반영을 하였다. 애정 생활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도 및 최근 몇 년간 학교의 정치사상 공작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말살하였다”는 신랄한 비판이 이어진다.<sup>44)</sup>

이렇듯 제재 면에서 ‘비진실성’과 ‘왜곡’을 표현했다는 관점은 ‘진실’은 권위적 ‘공개 텍스트’의 전매특허이며, 작품이 표현한 ‘내용’에 대한 해석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했다.<sup>45)</sup>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주류 서사’의 정확한 ‘인생관’ 및 ‘건전하고’ ‘발전적’이며 ‘낙관’적인 문학 정신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문학 규범의 논리를 철저하게 대변하였다. 이와 비슷한 논조의 허시라이(何西來)의 문장 역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간지 《문회보(文匯報)》에 게재되며<sup>46)</sup>, 이내 주류 담론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듯 주류 서사에 입각한 정확한 ‘인생관’과 답안의 제시를 강요하는 문단 규범과 작가의 문학관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작가는 《당대》 4호에 수록된 글에서,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나는 이 소설에서 쉬칭 식의, 캉우쓰 식의, 그리고 거이란 식의 사랑을 포함한 서로 다른 연애관을 지닌 세 여성을 통해 눈앞의 현재 상황을 개괄하려 하였다. 나는 평어와 주해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사고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본래 의도였다”<sup>47)</sup>고 말하며, 자신의 관점과 ‘답안’을 강요하는 주류 담론과는 배치되는 문학관을 드러낸다. “어떠한 문에 작품도 ‘이것’ 혹은 ‘저것’을 쓸 수 있을 뿐, 수학의 항등식처럼 어느 곳에 놓아도 모두 꼭 들어맞는 것은 결코 없을 것”<sup>48)</sup>이라는 주장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이는 “생활은 본디 이렇게 복잡한 것이며, 한 사람의 사유와 생활 궤적은 단순한 직선이 결코 아니다”<sup>49)</sup>라는 작가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기에 “문

44) 李昕、張曙紅, 앞의 글.

45) 程光燾, 앞의 글, 18쪽.

46) 이 문장에서는 “작가의 묘사 대상에 대한 거리감과 생경함으로 인해 작품을 꾸며내는 결함을 필연적으로 드러냈으며, 인물의 성격이 생활과 그 자신의 논리에 부합되도록 만들기 힘들었기에 진실하고 감동적으로 쓰기가 어려웠다”는 비판을 한다. (何西來, <忽略了“會有的實情”——評中篇小說《公開的'內參'》>, 《文匯報》1982.7.6.)

47) 張笑天, <就《公開的'內參'》答讀者>, 254쪽.

48) 張笑天, 앞의 글, 254쪽.

학 작품을 평가할 때 기준은 다르지만 그것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술적 허구”를 통해 “작가가 방대한 생활의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뜨는 것을 허락하는데, 옳은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있는 것이야말로 예술이고, 삶의 원형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하며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량을 지닌다”<sup>50)</sup>는 작가의 문학관을 강조한다.

《공개된 ‘내부 참고’》가 당시로선 문단에 영향력이 컸던 간행물 《당대》 1호에 실렸지만, 이후 《당대》 잡지에서는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강렬한 반향”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회답 성격을 지닌 두 문장만을 불과 세 쪽을 할애해 《당대》 4호에 발표했을 따름이다. 두 문장의 서두에 있는 ‘편집자의 말(編者按)’에서는 작가의 문장과 일부 독자 투고 편지를 게재하여 독자 참조용으로 제공한다는 정보만 제시되고, 진일보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만 있을 뿐, 이 작품의 의의 및 한계 등에 대한 일체의 평론도 게재하지 않는다.<sup>51)</sup> 이러한 반응은 간행물의 편집자들이 주류 비평계에서 형성된 작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흐름을 발 빠르게 포착하고, 혹시 모를 후환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 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소개한 전국적 단위의 권위지에 실린 두 문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논쟁은 1982년에 막 창간된 《문담(文譚)》(훗날 《당대 문담(當代文壇)》의 전신) 및 《작품과 논쟁(作品與爭鳴)》 등 지명도와 문단에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논의’적인 성격을 지닌 간행물에서 주로 토론되었다.<sup>52)</sup> 그리고 논쟁에

49) 생활의 복잡한 면모에 대한 이 서술은 《당대》 잡지에 수록된 동일 제목의 문장에는 없으며, 문집에 추가적으로 서술된 부분이다. 張笑天, <就《公開的內參》答讀者>(《張笑天文集 散文隨筆卷》, 吉林人民出版社, 2002), 610쪽.

50) <眞善美與作家>(《張笑天文集 散文隨筆卷》, 吉林人民出版社, 2002), 623쪽.

51) ① 張笑天, <就《公開的內參》答讀者>, 253-254쪽. ② <部分讀者對《公開的內參》的反應>, 255쪽; 첫 번째 문장 상단에 “본 잡지 금년 제1호에 장사오텐 동지의 중편소설 《공개된 ‘내부 참고’》이 발표된 이후, 독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작가의 <《공개된 ‘내부 참고’》에 관해 독자에게 답함(就《公開的內參》答讀者)>를 특별히 발표한다. 동시에 서로 다른 의견을 포함한 일부 독자 투고 편지의 요점을 게재하여 독자에게 참고로 제공한다. 본 잡지는 이 작품에 대한 진일보한 토론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편집자의 말이 짙막하게 제시된다.

참여한 대다수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대학생이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작가가 《공개된 '내부 참고'》에 이어 《우거진 들판의 풀(離離原上草)》(1982)을 발표한 이후, '인성'과 '인도주의'를 서술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듬해인 1983년 5월, '정신오염 제거' 운동에서 이 작품이 "국민당과 공산당 두 당의 투쟁의 본질을 말살하였고", "인성론으로 계급론을 대체하였다"는 명목으로 지명돼 비판을 받았다. 이어서 1984년 1월 9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4,000자에 이르는 반성문(檢討書)이 게재된 점 역시 이 작품이 '정전 구조'의 문단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주류 비평가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공개된 '내부 참고'》는 자연스럽게 '논쟁작'("爭鳴作品")으로 규정된다. 이는 중국 작가협회에 의해 선집 형태로 1986년 시대 문예 출판사에서 출판한 신시기 논쟁 작품 총서('新時期爭鳴作品叢書') 시리즈로 분류돼 출판<sup>53)</sup>되면서 작품에 대한 평가가 고착화된다. 권위 있는 공식 기구인 중국 작가협회에 의해 선정됐다는 점은 이 작품이 '논쟁작'의 범주를 넘어 재평가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약화시켰다 판단할 수 있다. 이후 경직된 문단 질서가 다원화되는 1997년에 출판된 《중국 신시기 명가 논쟁소설 대관(中國新時期名家爭鳴小說大觀)》(青島出版社出版, 1997)에 재수록되며, 이 소설이 여전히 '논쟁작'의 범주에 멈춰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80년대 초반 역사적 콘텍스트와 이 시기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의 내면세계를 생동적으로 서술한 《공개된 '내부 참고'》의 시대적 의미

52) 대표적인 문장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彭其雲、安以仁, <公開的內參要告訴人們什麼>, 《文譚》 1982年 02期. ② 劉萬廈, <她, 應該是一個探索者——評《公開的'內參'》中戈一蘭的形象>, 《文譚》 1982年 02期. ③ 袁永慶, <可信的, 也是典型的——也談《公開的'內參'》中戈一蘭的形象>, 《文譚》 1982年 04期. ④ 姚定一, <怎樣理解戈一蘭的形象——與劉萬廈、袁永慶等同志商榷>, 《文譚》 1982年 05期. ⑤ 林之豐, <八十年代大學生的剪影——談小說《公開的'內參'》中的幾個人物>, 《作品與爭鳴》 1982年 06期. ⑥ 駱曉源, <要注重文學作品的社會效果——試評中篇小說《公開的'內參'》>, 《作品與爭鳴》 1982年 6期.

53) 中國作家協會創作研究部選編, 《公開的'內參'》, 時代文藝出版社, 1986; 이 선집의 제목은 《公開的'內參'》이지만, 논쟁작 범주에 포함되는 다른 네 편의 중편소설이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작품 원문 뒤에 《문답》에 게재된 네 편의 문장이 부록 형태로 수록되었다.

에 대한 문단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작품에 대한 재평가와 공식 문학사 서술의 흐름은 전혀 살필 수 없게 된다. 이후 산발적으로 장샤오텐의 문학관과 작품 세계를 고찰한 학위 논문과 소논문 속에서만 그 명맥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공개된 '내부 참고'》는 점차 '잊혀진 작품'이 되었다.

#### 4. 나가며

《공개된 '내부 참고'》는 1980년대 초반 문혁 종결 이후 '포스트 문혁기', 즉 문단 내부의 '규범'과 '느슨함'의 긴장된 모순이 존재했던 시기에 창작·발표되었다. 작품은 계획 경제와 혁명 이데올로기의 강조에서 '4개 현대화'와 개혁 개방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작가는 철저하게 현실 생활의 토양 위에 자신의 창작을 지탱하는 초석을 두었고, 이 전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 도덕, 추구, 인성 등에 이르는 제반 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개성적인 내면세계를 지닌 인물들을 형상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 시기 널리 유행하던 도식적이고 몰개성적인 글쓰기를 극복하고, 당시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소재와 서술로 독자 대중의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작가는 당 지도층의 정책 수립을 위한 비공개 정보지로,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생소한 '내부 참고'라는 소재를 채택하였다. 이를 빌어 1980년대 초반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의 인생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에 관한 가치관의 충돌과 시대의 변화에도 변치 않는 도덕과 사랑의 가치와 의미 등에 대해 독자들 스스로 가치 판단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이른바 '신'과 '구', '전통'과 '혁신'의 충돌과 융합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드러냈으며, 각기 다른 가치관과 사유 방식, 행위가 소통·융합되는 지점에 대한 작가적 문제의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문단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독자들의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작가 필치 하의 인물 성격의 분열, 정해진 틀이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새롭고 독특한 필치로 인해, 당시에 필연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sup>54)</sup> 이후 '논쟁작'으로 간주돼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하며, 오랜 기간 '잊혀진 작품'으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당시 찾아보기 힘든 시대적 현상성과 시대의를 담아내며, 복잡한 현실 생활의 디테일한 묘사와 생동적인 인물 형상을 통해 당대를 살아가는 중국인의 복잡한 내면세계와 작가의 높은 사회적 책임감에 입각한 탐색 정신과 문학적 체험을 성공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존재 의의를 부정할 수 없다.

#### < 參考文獻 >

- 張笑天, 《張笑天文集 中篇小說卷 1》, 吉林人民出版社, 2002.
- \_\_\_\_\_, 《張笑天文集 散文隨筆卷》, 吉林人民出版社, 2002.
- \_\_\_\_\_, <就《公開的“內參”》答讀者>, 《當代》 1982年 04期, 1982.
- \_\_\_\_\_, <行百里者半于九十——我的文學自傳>, 《新苑》 1983年 1期, 1983.
- 中國作家協會創作研究部選編, 《公開的“內參”》, 時代文藝出版社, 1986.
- 孟繁華, 程光燁, 《中國當代文學發展史》(修訂版), 人民文學出版社, 2011.
- 北京市文聯研究部編, 《爭鳴作品選編·第二輯》(內部資料), 北京市文聯研究所, 1981.
- 鄂基瑞 等撰, 《中國現代文學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90.
- 山東大學等二十二院校編寫組編, 《中國當代文學參閱作品選 第9冊》, 海峽文藝出版社, 1988.
- 張志忠主編, 《中國當代文學60年》, 高等教育出版社, 2009.
- 程光燁, 《文學講稿: “八十年代”作為方法》, 北京大學出版社, 2009.
- 何青志, 《何青志文集》, 吉林人民出版社, 2014.
- 洪子誠, 《中國當代文學概說》, 香港: 青文書屋, 1997.
- \_\_\_\_\_, 《중국당대문학사》, 박정희 역, 비봉출판사, 2000.
- \_\_\_\_\_, 《問題與方法》, 北京大學出版社, 2010.

54) 馮肖華, <當代大學生題材創作的三股浪潮——兼談舊時期知識分子題材>《當代文壇》 2003年 01期, 2003), 44쪽 참조.

- 喬邁,〈衆說紛紜張笑天〉,《當代作家評論》1999年01期,1999.
- 紀衆,〈歷史敘述的文學文本——張笑天的小說特性和方法〉,《文藝爭鳴》2005年06期,2005.
- \_\_\_\_\_,〈歷史敘述的小說文本——張笑天被遺忘與被敵視的兩部中篇小說論評〉,《作家》2005年07期,2005.
- 劉萬廈,〈她,應該是一個探索者——評《公開的“內參”》中戈一蘭的形象〉,《文譚》1982年02期,1982.
- 李昕、張曙紅,〈不象我們的生活——武大同學座談《公開的“內參”》〉,《中國青年報》1982.6.12.
- 李海曙,〈全方位的文學比喻——張笑天比喻特色談片〉,《當代修辭學》1989年04期,1989.
- 李洪華,〈轉型時期大學敘事小說的敘述聲音與話語方式〉,《江西社會科學》2016年02期,2016.
- 林之豐,〈八十年代大學生的剪影——談小說《公開的“內參”》中的幾個人物〉,《作品與爭鳴》1982年06期,1982.
- 方岩,〈從文學期刊到文學選本——1980年代文學批評史形態的一個側面〉,《文藝爭鳴》2016年09期,2016.
- 徐勇,〈1980年代選本與文學經典化問題——以1980年代短篇小說選本為例〉,《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6年04期,2016.
- \_\_\_\_\_,〈20世紀80年代爭鳴作品選本與批評空間的開創〉,《社會科學》2017年07期,2017.
- 薛金升,〈分裂與虛假〉,《文藝報》1982.9.
- 孫里,〈敏銳地感應時代的變化——張笑天中篇創作斷想〉,《新苑》1983年02期,1983.
- 鄺曉原,〈要注重文學作品的社會效果——試評中篇小說《公開的“內參”》〉,《作品與爭鳴》1982年06期,1982.
- 姚定一,〈怎樣理解戈一蘭的形象——與劉萬廈、袁永慶等同志商榷〉,《文譚》1982年05期,1982.
- 袁永慶,〈可信的,也是典型的——也談《公開的“內參”》中戈一蘭的形象〉,《文譚》1982年04期,1982.
- 耳寶君,〈什麼叫內參〉,《新聞與寫作》1985年08期,1985.
- 張毓茂,〈探索者的得與實——張笑天創作芻議〉,《春風》1983年02期,1983.

- 程光焯, <文學的緊張: 《公開的情書》、《飛天》與八十年代“主流文學”>, 《南方文壇》 2006年 06期, 2006.
- \_\_\_\_\_, <文學“成規”的建立——對<班主任>和《晚霞消失的時候》的“再評論”>, 《當代作家評論》 2006年 第2期, 2006.
- 曾祥麟, <隨處都有濁流,警惕啊!——讀《公開的'內參'》隨想>, 《文譚》 1982年 04期, 1982.
- 彭其雲、安以仁, <公開的內參要告訴人們什麼>, 《文譚》 1982年 03期, 1982.
- 馮肖華, <當代大學生題材創作的三股浪潮——兼談舊時期知識分子題材>, 《當代文壇》 2003年 01期, 2003.
- 何西來, <忽略了“會有的實情”——評中篇小說《公開的'內參'》>, 《文彙報》 1982.7.6.
- 何青志, <春天裏的敘事——張笑天中篇小說創作論>,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3年 01期, 2013.
- <部分讀者對《公開的'內參'》的反應>, 《當代》 1982年 04期, 1982.
- 김중석, <禮平 《晚霞消失的時候》에 대한 비판과 재평가>, 《중국어문논총》 50집, 중국어문연구회, 2011.9.
- \_\_\_\_\_, <靳凡 中편소설 《공개된 연애편지(公開的情書)》 小考>, 《중국학논총》 61집,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8.9.

## < Abstract >

### The Study on Zhang Xiaotian's Novella *The Open Internal*

Kim, Jongseok

As a contemporary writer and realist, Zhang Xiaotian contributes great amount of charistaristic works to the contemporary literature with his profound grounding in surprising skill and his outstanding literary talent.

He gained achievement in various novels, which characterized specialties, especially in the creation of novella which was burst with unceasing exploration

in life and art. The richful aesthetic image and profound thoughts composite his unique perspective in novella creation.

In 1982, he published *The Open Internal* in the first issue of the literature publication *Contemporary*. This novella was quickly spread to young generation and gained great popularity. There was a different strong sensation with both good reviews and criticism among the readers.

This work was regarded as a controversial work in the 1980s, but as time goes by, it was forgotten for a long tim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is novella and investigate the thought of personages, that is created by him, in the social reality of the historical revolution. Furtherm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y it has been neglected and criticized.

After analysis, found that Zhang Xiaotian was focusing on the performance of human nature, portray psychological, grasping live detail. He portrayed these personages with blood and flesh and distinctive individual character. He overcame the trammels of literary works which tend to over simplify and generalize, and he portrayed the personages from life and emotion details.

Key words: Zhang Xiaotian, *The Open Internal*, realist, novella, controversial work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0. 31	2018. 11. 20	2018. 11. 29	2018. 12. 9	2018. 12. 31